

축구국가대표팀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3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11월 A매치 2연전에 나설 25명의 태극전사

'원칙' 깬 슈틸리케

소속팀 부진 이정협·박주호·윤석영 발탁 석현준은 똑같은 이유로 제외 '이중잣대'

한국축구는 위기에 몰려있다.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여부가 불투명하다. 2018러시아월드 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에서 2승1무1패, 승점 7로 이란(3승1무·승점 10)과 우즈베키스탄(3승 1패·승점 9)에 이어 3위에 머물고 있다. 15일 서 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우즈벡과의 최종예선 5차전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처지다.

그럼에도 울리 슈틸리케(62·독일) 축구국가대 표팀 감독은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. 실 언도 거듭됐다. 3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진행된 캐나다전(11일·천안·평가전)~우즈벡전 엔트리(25명) 발표 기자회견은 안타까웠다.

일단 원칙이 깨졌다. "뛰지 못하는 선수는 뽑 지 않겠다"던 약속을 뒤집었다. 7개월여 만에 호 출된 이정협(25·울산)의 발탁은 큰 의문을 자아 냈다. 지금의 이정협은 지극히 평범하다. 울산에 서도 주전급이 아니다. 그러나 '플랜A 투입'을 공 표했다. 이를 위해 슈틸리케 감독은 핵심은 피한 채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았다. "볼 소유를 많이 하고 문전 세밀함이 필요하다. 우리 공격이 강했 을 때는 수비 문제가 없다. 공격을 강화하면 수비 도 해결된다. (이정협의 합류로)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리라 본다." 이어진 '이정협이 부진하다' 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선 "공격수를 평가할 때 포인트만 보지 않는다. 다른 방식으로 평가한다. 처음 뽑았을 때도 주전급이 아니었다. 그러나 내 가 원한 움직임을 보였다. 울산에서 많이 움직이 며 열심히 뛰지만 찬스가 적다"고 설명했다.

앞뒤가 맞지 않는다. 역시 소속팀에서 부진한 왼쪽 풀백 박주호(29·도르트문트)와 윤석영(26· 브뢴뷔)은 뽑아놓고도, 석현준(25·트라브존스포 르)에 대해선 "요즘 소속팀 경기에 뛰지 않는 상 황이 발생해" 부르지 않았다고 했다. 사실상 주 전 투입을 약속한 이정협과 비교하면 흡사 '코드 인사'임을 자인한 격이다. 과거 덜 뽑아서 논란이 된 대표팀 인원을 "내부경쟁을 위해서"라며 25명 까지 늘려놓았으니 더더욱 이상하다. 우즈벡전 에는 23명만 등록할 수 있다. 이날 발표된 11월 소집 명단 25명 중 2명은 빠져야 한다.

슈틸리케 감독은 "우즈벡전은 아주 중요하다. 홈에서 승점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나와선 안 된 다"며 필승의지를 드러냈다. 그러나 원칙이 깨지 고, 주전과 비주전이 뚜렷해진 상태에서 축구대 표팀이 제대로 전력을 가동할 수 있을지 우려스 럽다. 월드컵 본선은 물론 최종예선도 실력을 증 명하고 발휘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.

▶관련기사 8면

남장현 기자 yoshike3@donga.com

편집 | 좌혜경·김청조 기자



1~2차전을 소화한 2016 한국시리즈가 이제 마산으로 장소를 바꿔 중반전에 돌입한다. 구장 규모, 날씨, 관중 등 다양한 변수가 있는 가운데 2연승의 두산이 시리즈를 끝낼 지, NC가 반격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.



승부는 이제 마산으 로 넘어갔다. '2016 타 이어뱅크 KBO 포스트 시즌'한국시리즈(KS) 3~5차전이 11월1~

3일 마산구장에서 펼쳐 진다. 두산이 홈구장 잠실에서 2연승을 거두 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가운데, NC가 안방 마산에서 반격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.

같은 야구지만, 언제 어디서 열리느냐에 따 라 다른 야구가 될 수 있다. 특히 마산 3~5차 전은 잠실과는 다른 변수들이 존재해 승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.

잠실과 가장 대조적인 부분이 마산구장의 규모다. 잠실은 국내 구장 중 규모가 가장 크 다. 홈플레이트에서 좌우 펜스까지 100m. 가 운데 펜스까지 125m나 된다. 그러나 마산구 장은 좌우 펜스까지 97m이며, 중앙 펜스 거 리는 116m에 불과하다. 국내 10개구단 메인

KS 3차전 예고 1일 화요일 오후6시30분· 마산

중계: MBC TV

실은 넓지만, 마산구장은 좁다. 마산은 여러

홈구장 중 가장 작다. 게다가 파울지역도 잠

모로 타자에게 유리한 구장으로 꼽힌다. 따라서 마산구장에서는 홈런을 조심해야한 다. 잠실 1~2차전에서는 양 팀 통틀어 2차전 8회말 두산 김재환의 솔로홈런 1개만 터졌다. 그러나 마산이었다면 충분히 홈런이 될 만한 타 구가 많았다. 특히 2차전 8회말 두산 닉 에반스

의 왼쪽 펜스 상단에 걸린 2루타와 9회초 에릭 테임즈의 좌익수 플라이 역시 마산이라면 홈런 이 될만한 타구였다. 올 정규시즌 기록을 집계 해보면 잠실에서는 경기당 1.5개의 홈런이 나왔 지만, 마산에서는 경기당 2.1홈런이 터졌다.

엔 정규시즌 115홈런을 합작한 '나테이박(나 성범~테임즈~이호준~박석민)'이 있고, 두 산엔 20홈런 이상 타자만 5명(김재환~오재 다. 홈런 공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농후하다.

바람도 변수로 꼽힌다. 특히 외야 쪽은 수시 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타구에 영향을 끼 친다. 플레이오프(PO) 1차전 7회초 LG 루이스 히메네스의 타구는 좌측 파울폴 바깥으로 휘어 나가야 정상이었을 타구가 갑자기 역회전이 걸 리며 폴 안쪽으로 들어가 홈런이 됐다. 또한 마 산에서는 종종 외야수들이 바람 때문에 평범한 플라이 타구를 놓치곤 해 집중력이 필요하다.

구선수들은 신체리듬이 야간경기에 맞춰져 있 기 때문에 낮경기에서는 타자들의 집중력이 떨어져 고전할 때가 많다. KS 1~2차전도 낮 경기로 진행됐고, 저득점 시리즈가 이어졌다. 더군다나 양 팀엔 거포들이 즐비하다. NC 3~5차전은 야간경기여서 다른 분위기에서 좀

더 많은 점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.

날씨도 변수다.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, 3차 전이 열리는 1일 저녁 6시엔 기온이 영상 9도, 일~에반스~양의지~박건우) 포진하고 있 9시엔 영상 7도까지 떨어진다. 2일에도 마찬 가지다. 바람까지 분다면 체감온도는 영하권 이 될 수 있다. 올 가을야구에서 가장 추운 날 씨 속에서 야간경기로 진행돼 선수들의 손이 어는 등 플레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.

여기에 관중 분위기도 다르다. 잠실에서는 2만5000명의 대규모 관중 속에서 두산팬들이 3루 쪽 NC 관중석까지 점령하면서 응원전을 압도했다. 그러나 마산은 1만1000석 관중 규 모로 아담하다. 마산에서 사상 처음 치러지는 야간경기라는 변수도 있다. 일반적으로 야 KS 무대이기에 NC 홈팬들의 응원이 뜨거워 질 전망이다.

> 깊어지는 가을밤, 승부도 깊어지고 있다. 3차전에 두산은 마이클 보우덴, NC는 최금강 을 선발로 예고했다. ▶KS 관련기사 2·3·4·6면

이재국 기자 keystone@donga.com

